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KHÓA LUẬN TỐT NGHIỆP

NGÀNH : NGÔN NGỮ ANH

Sinh viên : Nguyễn Thị Như Quỳnh

HẢI PHÒNG – 20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말 언어 사용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

KHÓA LUẬN TỐT NGHIỆP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NGÀNH : NGÔN NGỮ ANH – HÀN

Sinh viên : Nguyễn Thị Như Quỳnh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 ThS Nguyễn Hồng Minh

HẢI PHÒNG – 202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

NHIỆM VỤ ĐỀ TÀI TỐT NGHIỆP

Sinh viên: Nguyễn Thị Như Quỳnh Mã SV: 2112753002

Lớp : NA2501H

Ngành : Ngôn ngữ Anh

Tên đề tài: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말 언어 사용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

NHIỆM VỤ ĐỀ TÀI

1. Nội dung và các yêu cầu cần giải quyết trong nhiệm vụ đề tài tốt nghiệp

.....

.....

.....

.....

.....

.....

2. Các tài liệu, số liệu cần thiết

.....

.....

.....

.....

.....

.....

3. Địa điểm thực tập tốt nghiệp

.....

CÁN BỘ HƯỚNG DẪN ĐỀ TÀI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 Nguyễn Hồng Minh

Học hàm, học vị : Thạc sĩ

Cơ quan công tác : Trường Ngoại Ngữ - Đại học Thái Nguyên

Nội dung hướng dẫn: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말 언어
사용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

Đề tài tốt nghiệp được giao ngày ... tháng ... năm 2025

Yêu cầu phải hoàn thành xong trước ngày ... tháng ... năm 2025

Đã nhận nhiệm vụ ĐTTN

Sinh viên

Đã giao nhiệm vụ ĐTTN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Nguyễn Thị Như Quỳnh

ThS. Nguyễn Hồng Minh

Hải Phòng, ngày ... tháng ... năm 2025

XÁC NHẬN CỦA KHOA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HIẾU NHẬN XÉT CỦA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ỐT NGHIỆP

Họ và tên giảng viên: ThS. Nguyễn Hồng Minh
Đơn vị công tác: Trường Ngoại Ngữ - Đại học Thái Nguyên
Họ và tên sinh viên: Nguyễn Thị Như Quỳnh
Chuyên ngành: Ngôn ngữ Anh - Hàn
Nội dung hướng dẫn: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말 언어 사용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

1. Tinh thần thái độ của sinh viên trong quá trình làm đề tài tốt nghiệp

.....

.....

.....

.....

.....

2. Đánh giá chất lượng của đề án/khóa luận (so với nội dung yêu cầu đã đề ra trong nhiệm vụ Đ.T. T.N trên các mặt lý luận, thực tiễn, tính toán số liệu...)

.....

.....

.....

.....

3. Ý kiến của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tốt nghiệp

Được bảo vệ ☐ Không được bảo vệ ☐ Điểm hướng dẫn ☐

Hải Phòng, ngày ... tháng ... năm

Giảng viên hướng dẫn

(Ký và ghi rõ họ tê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HIẾU NHẬN XÉT CỦA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Họ và tên giảng viên: ThS. Nguyễn Hồng Minh

Đơn vị công tác:

Họ và tên sinh viên: Nguyễn Thị Như Quỳnh

Chuyên ngành: Ngôn ngữ Anh

Đề tài tốt nghiệp: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말 언어 사용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

1. Phần nhận xét của giáo viên chấm phản biện

.....

.....

.....

.....

2. Những mặt còn hạn chế

.....

.....

.....

.....

3. Ý kiến của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Được bảo vệ ☐ Không được bảo vệ ☐ Điểm hướng dẫn ☐

Hải Phòng, ngày ... tháng ... năm

Giảng viên chấm phản biện

(Ký và ghi rõ tên)

목록

초록.....	I
감사의 말씀.....	II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주제 선정 이유	1
1.2 연구 목적.....	2
1.3 연구 질문	3
1.4 연구 대상 및 범위.....	4
1.5 연구 방법.....	4
1.6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2.1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의 인사 문화 개괄	8
2.1.1 인사표현의 정의.....	9
2.1.2 인사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5
2.1.3 인사표현의 분류.....	16
2.1.4. 인사말의 의미적·문화적 특성 (음성적, 양성적).....	24
2.2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말의 언어 구조와 의사소통 기능	25
2.2.1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말의 언어적·형식적 특징	26
2.2.2. 사용 맥락에 따른 인사말의 분류	29
2.2.3.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 표현을 통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	32
제 3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34
3.1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말 구조 및 형성 방식 비교.....	34

3.1.1. 한국어 인사말의 구조 및 형성 방식	34
3.1.2. 베트남어 인사말의 구조 및 형성 방식	35
3.2. 특정 상황에서의 인사말 사용	36
3.2.1. 처음 만났을 때	36
3.2.2.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39
3.2.3.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사	42
3.2.4. 작별 인사	45
3.3.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사 표현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48
3.3.1.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에 의한 오류	48
3.3.2. 적절한 높임말 수준 선택의 어려움	49
3.3.3. 간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인사 표현 혼동	50
3.3.4. 인사 표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오해	50
3.3.5. 현대적 소통 방식과 SNS 습관의 영향	51
3.4.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 표현 사용 효과 제고를 위한 해결 방안	52
3.4.1. 교육과정 내 화용론 및 의사소통 문화 교육 강화	52
3.4.2. 두 언어 간의 직접적인 비교·대조	53
3.4.3.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3
3.4.4. 현대적 인사 표현의 업데이트 및 분류를 통한 의사소통 추세 반영	54
제 4. 결론	56
참고문헌	59

초록

세계화와 국제 통합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어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와 함께, 베트남 역시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 문화, 교육 및 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사 문화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연구할 가치가 높은 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인사는 단순한 사회적 의례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사는 단순히 화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고, 친밀감의 정도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각 나라의 인사 방식을 통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언어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와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 관습 및 언어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 표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말 언어 사용에 대한 비교 및 대조 연구"는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인사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인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사의 내용, 의미론적 특징, 문법 구조 및 어휘적 차이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 학습자가 두 언어의 인사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언어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를 밝혀 인사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감사의 말씀

이 졸업 논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가족,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도움과 소중한 조언,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를 받는다.

우선, 논문 지도교수이신 Nguyen Hong Minh 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연구 전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셨으며, 건설적인 조언과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교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졸업 논문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이퐁 관리기술대학교 외국어학부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지난 4년 동안 유익한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전해 주셨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곁에서 응원해 주며 힘이 되어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된다.

Hai phong, ...2025

학생

Nguyen Thi Nhu Quynh

제 1 장: 서론

1.1 연구 주제 선정 이유

문화는 한 민족의 뿌리이며,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다. 한 민족이 정치 체제를 바꾸거나 외세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문화를 유지한다면 그 민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민족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현대 사회에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문화 체계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가 정신이라면, 언어는 그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한 민족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관습, 생활방식을 탐구하는 길이 열린다. 특히, 의사소통에서 인사말은 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례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전통을 반영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는 인사가 기본적인 예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Lời chào cao hơn mâm cỗ" ("인사가 상차림보다 중요하다")라는 속담은 인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인사는 단순한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각 나라의 인사법은 서로 다르며, 이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저는 하이퐁 관리 기술 대학교(Trường Đại học Quản lý và Công nghệ Hải Phòng)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어에는 매우 체계적인 경어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나이, 친밀도에 따라 적절한 인사말을 선택해야 한다. 베트남어에서는 친근한 분위기의 인사가 많고, "밥 먹었어요? (Ăn cơm

chưa?)"나 "어디 가요? (Đi đâu đấy?)" 같은 표현도 흔히 사용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 예의 바른 표현과 함께 몸짓까지 신경 써야 하며, 상황에 맞는 존댓말을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특히 인사 표현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복잡한 경어법이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일반적인 존댓말)와 "안녕하십니까"(격식을 갖춘 표현)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어느 정도로 고개를 숙여야 할지, 누구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법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법을 익히는 것은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베트남어에서의 인사법
- 한국어에서의 인사법
-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법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사 표현을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인사 문화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 교류 및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학습자가 인사의 역할을 인식하여 언어를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사는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지위, 예절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따라서 두 언어의 인사 표현을 연구하고 비교함으로써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 표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언어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찰한다. 두 언어는 어휘, 문장 구조, 표현 방식, 상황에 따른 유연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국어는 경어법이 발달하여 인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표현하는 반면, 베트남어는 주로 호칭을 통해 존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 학습자가 인사 표현을 사용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용은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적절한 인사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안한다. 인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 표현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실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자가 더욱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화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교류, 협력 및 발전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1.3 연구 질문

1. 두 언어에서 인사할 때 사용하는 어휘, 억양, 몸짓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다양한 상황(첫 만남, 직장 내 대화, 친밀한 대화 등)에서 어떤 형태의 인사를 주로 사용합니까?

1.4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을 중심으로 인사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사는 단순한 예의 표현을 넘어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인사말이 지닌 언어·문화적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사 방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사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도 함께 고찰한다. 예를 들어,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사회적 지위,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사 표현의 변천 등을 분석함으로써, 각 언어의 인사말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대, 종교, 정치 등 특정한 의례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사 표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전화 인사말, 온라인 문자 기반 의사소통, 그리고 비음성적 의사소통 방식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인사 역시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들이 유연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 분석 과정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 방법과 비교 방법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기술 방법:

이 방법은 인사말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인사말이 사용되는 맥락,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인사말의 특색 있는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 분석은 각 언어의 인사 방식이 지닌 다양성과 풍부함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 비교 방법:

비교 방법은 한글과 베트남어의 인사 현상을 명확히 규정된 연구 틀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이 연구 틀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사용 맥락:

인사말은 일상 대화, 기념일, 특별 행사 및 공식적인 상황 등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분류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인사말이 얼마나 유연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

본 연구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사회적 지위, 의사소통 환경 및 시간에 따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배경이 인사 행동을 형성하는 방식과 두 언어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을 보장하며, 두 개의 상이한 의사소통 체계를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문헌 조사 및 자료원,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원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선정되었다. 주요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참고 도서 및 학술 논문:

이는 인사 행동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 자료로, 권위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편찬되고 출판된 이론적 분석 및 실증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 논문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원:

전문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연구 보고서도 귀중한 정보원으로 활용된다. 이들 자료는 한글과 베트남어 인사말 사용과 관련된 최신 데이터와 현대적 경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 선정은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연구 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연구가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자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 데이터의 다양성과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문헌 조사 및 분석:

발표된 문헌, 학술 논문 및 전문 서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한글과 베트남어 인사말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 선별 및 분석함으로써 초기 결론을 도출한다.

- 전자 데이터 분석: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원을 활용하여 현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수집된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비교 분석한다. 이 방법은 인사말 사용 방식의 새로운 경향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과 여러 정보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본 논문은 인사 행동의 언어적 및 문화적 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한글과 베트남어 인사말의 특징과 진화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 있게

파악하여, 양국의 의사소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1.6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주요 장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주제 선정의 이유, 연구 목적과 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전체 논문의 기초를 마련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관련 개념, 이론, 그리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여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한다.

제 3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말 현상을 분석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과 특성을 상세히 논의한다.

제 4 장: 결론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마무리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의 인사 문화 개괄

인사는 각 문화에서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의, 존중,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각 나라의 인사 문화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징, 관습,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글로벌화 시대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베트남의 인사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의, 존중,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인사 방식을 사용한다. 베트남어에서 인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인사 표현: 베트남 사람들은 고정된 인사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인사한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에서는 "Dạ, con chào ông/bà" (할아버지/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존경을 표현한다. 직장에서는 "Chào anh/chị" (형/누나, 안녕하세요) 또는 "Em chào sếp" (상사님, 안녕하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지위에 맞는 인사를 한다.
- 동작을 동반한 인사: 베트남 사람들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몸을 숙이는 행동을 함께 사용한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볍게 포옹하기도 한다.
-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는 문화: 베트남에서는 단순한 인사말 외에도 "Anh khỏe không?" (형, 잘 지내세요?), "Dạo này công việc thế

nào?” (요즘 일은 어떠세요?)와 같이 상대방의 건강이나 일상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한국 사람들도 인사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위계질서가 명확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어에서의 인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지위와 상황에 따른 인사: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인사 표현을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손한 인사말입니다.

- "안녕" - 친한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편안한 인사말이다.
- "안녕하십니까" -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이는 가장 격식 있는 인사말이다.

인사 시 고개 숙이기: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정도에 따라 고개 숙이는 각도가 달라진다.

- 가벼운 인사 (15 도): 일반적인 일상 대화에서 사용된다.
- 정중한 인사 (30 도): 연장자나 직장 상사에게 인사할 때 사용된다.
- 깊은 인사 (45 도): 매우 존경을 표해야 하는 경우 사용된다.
-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는 표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2.1.1 인사표현의 정의

- 한국에서 인사표현의 정의

한국어 인사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사표현의 정의가 나타난다. 공통된 인사표현의 정의는 아직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인사표현의 정의를 분석하고 이 연구의 인사표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사표현은 {인사}와 {표현}의 합성어이다. 이에 에서 제시한 {인사}와 {표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와 {표현}의 정의

ㄱ. 인사 「명사」

「1」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포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2」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3」 입은 은혜를 갚거나 치하할 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ㄴ. 표현 「명사」

「1」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 「2」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사물의 이러저러한 모양과 상태.

자료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사표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헤어질 때 혹은 은혜를 갚을 때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을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인사표현은 만날 때, 헤어질 때, 은혜를 갚을 때에 사용한 언어와 몸짓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사표현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사표현을 정의한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사표현의 정의

분류	학자	정의	
		차이점	공통점
사회 언어학의 관점	김보인(2006: 5)	예의라고 주장함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행위
	박수란(2005: 8)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연결한다고 주장함	
	방혜숙(2007: 157)		
	이침(2010: 4)		
	서정수(1997: 13)	감정을 표현하는	

화행의 관점	김선정·김예지(2011: 58)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	
	김미령(2012: 205)	상대의 기대 방향에 맞추어 관심을 표현한다고 주장함	

<표 1>과 같이 인사표현의 정의는 사회언어학의 관점과 화행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언어학의 관점은 김보인(2006: 5), 방혜숙(2007: 157), 박수란(2005: 8), 이침(2010: 4), 서정수(1997: 13)를 들 수 있으며, 화행의 관점으로는 김선정·김예지(2011: 58), 김미령(2012: 205)를 들 수 있다.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도 김보인(2006: 5)에서는 인사가 예의라고 주장하였으며, 방혜숙(2007: 157), 박수란(2005: 8), 이침(2010: 4)에서는 인사를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연결하여 인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서정수(1997: 13)와 김선정·김예지(2011: 58)에서는 인사가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미령(2012: 205)에서는 인사는 상대의 기대 방향에 맞추어 관심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에서는 인사표현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행위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인사표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사표현이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화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언어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행동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표현은 언어적인 인사표현과 비언어적인 인사표현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

한편, 실제 언어생활에서 인사표현의 사용 양상을 볼 때 인사표현은 전형적인 인사표현과 예외적인 인사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인사표현은 학자에 따라 비슷한 정의를 제시한다. 문금현(2009: 66)에서는 전형적인 인사표현을 ‘빈말 인사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 국민들의 정과 체면, 겸손을 중시하고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 생겨난 의례 적인 인사 표현”이라고 하였다. 윤상호(2012: 12)에서는 한국어 의례적인 인사말의 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화자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고 가볍게 받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형식적 인사말”이라고 하였다. 김선정·김예지(2011: 62)에서는 전형적인 인사표현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로 ‘안녕하세요?’나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수고하세요.’등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형적인 인사표현은 인사 상황에 서 화자가 실제적인 의미가 없이 예의로써 하는 언어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예외적인 인사표현에 대한 연구로는 문금현(2009)이 있다. 문금현(2009)에서는 한국어 인사 표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고 한국어 인사 표현의 특징에서 상대방에게 ‘건강, 안부, 날씨, 근황, 식사여부’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현은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가지기 때문에 예외적인 인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분석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인사표현과 예외적인 인사표현이 모두 언어적인 인사표현에서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인사 표현을 전형적인 인사 표현과 예외적인 인사 표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베트남에서 인사 표현의 정의

인사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행위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언어 행위가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인의 의사소통에서 인사는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사는 화자의 존재와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친근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베트남어 인사 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요소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다차원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Hoàng Phê 주편의 『베트남어 사전』(2008:120)에 따르면, "chào(인사하다)"는 “서로 만났을 때나 이별할 때, 또는 웃어른을 대할 때 예의상 말하거나 몸짓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어 인사는 예의와 공손함, 겸손함,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의례적 언어 행위이다. 또한 인사는 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고, 개인 간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인사는 베트남 전통 가치체계 중 "예의"를 대표하는 행위이다. Trần Ngọc Thêm(2004)은 『베트남 문화의 기초』에서 인사가 베트남인의 예절 구조를 상징하며, 그 안에 뚜렷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른에게 인사해야 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손님은 주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세대 간, 계층 간 존중을 표현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도덕 규범과 문화 가치를 반영한다.

Nguyễn Văn Ai(2000)의 『베트남 의사소통 문화 사전』에서도, 베트남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하며, 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도덕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는 특히 가족, 친척, 이웃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화 규범으로 작용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베트남어 인사는 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인사는 명확한 인사 표현으로, 격식 있는 상황이나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사용된다.

- (1) Con chào bố mẹ(부모님 안녕하세요)
- (2) Chào cô ạ(선생님 안녕하세요)

또한, 실제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인사와 친근감을 전달하기 위한 간접적인 인사 표현으로 사용되는 의문문 형태의 표현들도 있다.

(3) Đi đâu đấy?(어디 가세요?)

(4) “Về rồi à?(오셨어요?)

(5) Ăn cơm chưa?(밥 먹었어요?)

Nguyễn Thiện Giáp(2001)은 『베트남어 화용론』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명시적 인사는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문화적 기능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소 역시 베트남어 인사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Nguyễn Văn Khang(2013)은 『의사소통 - 언어 - 문화』에서 인사가 높은 문화적 수준의 표현이며,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화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관계의 친밀도, 지역적 배경 등은 인사의 어휘 선택과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북부 지방에서는 연령과 지위에 따른 인사 표현이 엄격하게 구분되며, 남부 지방에서는 “dạ”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공손함을 강조한다. 이는 베트남어 인사 표현이 일률적이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베트남어 인사는 민족 정체성을 반영하고 사회 구조와 도덕적 규범을 드러내는 독특한 언어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사의 본질, 기능,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문화적 인식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베트남인이 타문화권과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2.1.2 인사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인사 화행은 의례적인 성격을 지닌 의사소통 행위로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Nguyễn Thị Hương (2014)에 따르면, 인사는 언어·문화적인 특수 현상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지위,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반영한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사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연령 요소이다. 베트남과 한국처럼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의사소통에서의 위계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여 존경의 뜻을 나타내며, 베트남어에서는 “Cháu chào bác ạ” 또는 “Con chào ông/bà ạ”와 같이 상대의 연령에 맞춰 인사한다. 나이에 따른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무례하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성별과 사회적 역할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성별 또한 인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하다. 한국어에서는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존중의 표현이며, 이 고개 숙임의 정도는 성별이나 인사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rown & Levinson, 1987). 마찬가지로 베트남어에서도 여성의 인사는 부드럽고 목소리 톤이 남성보다 낮고 온화한 경향이 있다.

셋째, 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 인사의 형식은 친밀한 관계인지, 혹은 상하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Lê Văn Canh (2008)에 따르면, 베트남어 화자들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호칭과 인사말을 조절하며, 친밀도나 존경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를 함께 사용한다. 한국어에서는

존댓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인사 표현에도 엄격하게 사회적 위계를 반영한다.

넷째, 의사소통의 상황이다. 시간대(아침, 점심, 저녁), 장소(가정, 직장, 공공장소), 의사소통의 목적(만남, 작별, 사과, 의례적 인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은 인사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서는 직장에서는 “Chào anh”이라고 하지만, 좀 더 친근한 상황에서는 “Em chào anh ạ”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만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헤어질 때는 화자의 위치에 따라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를 사용한다.

요컨대, 인사 화행은 한 언어 공동체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베트남과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1.3 인사표현의 분류

- 한국에서 인사표현의 분류

한국어 인사표현의 분류는 기준에 따른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인사표현은 서로 다르게 분류하지만 대부분 상황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절에서는 학자들이 제시한 인사표현의 분류에 따라 언어적인 인사표현의 분류 과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의 분류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 한국에서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

언어적인 인사표현의 분류는 학자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 크지 않다. 대부분 학자들은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인사표현을 제시한다. 따라서 서정수(1998: 14-15), 박수란(2005: 12), 문금 현(2008: 201-203), 정선민(2011: 76)에서 제시한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의 공통점

학자	분류	공통점
서정수(1998: 14) 박수란(2005: 12) 문금현(2008: 201)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오래간만에 만날 때, 우연히 만날 때
정선민(2011: 76)	헤어질 때	일상적인 헤어질 때

<표 2>과 같이, 언어적인 인사표현에 대하여 학자들은 만날 때와 헤어질 때라는 공통적인 분류를 제시하였다. 만날 때를 살펴보면 처음 만날 때, 오래간만에 만날 때, 우연히 만날 때로 나눌 수 있다. 헤어질 때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헤어질 때라는 공통적인 분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분류 상황은 한국어 언어적인 인사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의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의 차이점

분류	학자	차이점
만날 때	서정수(1998: 14)	아침, 낮, 저녁, 밤
	박수란(2005: 12)	만났던 상대를 다시 만날 때
	문금현(2008: 201)	찾아가거나 약속해서 만날 때
헤어질 때	박수란(2005: 12)	모임이나 약속 등에서 상대방보다 먼저 갈 때, 여행이나 이사 출장, 유학 등으로 오래 헤어져 있게 되었을 때(상대가 가는 경우, 본인이 가는 경우)
	문금현(2008: 201)	나중을 기약, 평안 기원, 만남 정리
	정선민(2011: 76)	오랜 기간 헤어질 때
기타	서정수(1998: 14-15)	외출과 방문, 감사와 유감, 축하와 위로
	문금현(2008: 202-203)	신년 및 생일, 집들이, 문상, 병문안, 가게를 나올 때, 안부 묻기, 식사, 근황

		확인, 날씨, 외모 언급, 빈말 인사
	정선민(2011: 76)	감사와 사과, 축하, 방문, 전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언어적인 인사표현의 차이점을 만날 때, 헤어질 때,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서정수(1998: 14)에서는 만날 때를 ‘아침, 낮, 저녁, 밤’과 같은 시간에 초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이외에 다른 학자들은 분류 상황만 다를 뿐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를 모두 상황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였다.

<표 2-3>에서 제시한 학자들의 분류를 살펴보았을 때, 인사표현이 사용 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분류는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사표현의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드라마에 나타난 언어적인 인사표현을 상황에 따라 만날 때, 헤어질 때, 식사할 때, 전화할 때, 발표할 때, 감사할 때, 사과할 때, 축하할 때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날 때와 헤어질 때는 상황이 나타나는 장소를 특정한 장소와 일반적인 장소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식사할 때, 전화 할 때, 발표할 때는 동작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사과할 때, 축하할 때는 이미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분류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한국어 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

분류			하위분류
만날 때	특정한 장소	집	일어날 때, 귀가할 때, 손님을 마중할 때
		직장	출근할 때, 다른 부서로 방문할 때, 쉬는 시간에 만날 때
		학교	등교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
		공공장소	들어갈 때, 주문할 때

	일반적인 장소		처음 만날 때, 약속 후에 만날 때, 우연히 만날 때, 오랜 간만에 만날 때
헤어질 때	특정한 장소	집	주무실 때, 외출할 때, 손님을 배웅할 때
		직장	퇴근할 때, 쉬는 시간에 만나고 헤어질 때
		학교	하교할 때, 수업이 끝날 때
		공공장소	나갈 때
	일반적인 장소		나중을 약속하고 헤어질 때, 상대방보다 먼저 갈 때, 일상적인 헤어질 때, 화가 나서 쫓아낼 때, 오랫동안 헤어질 때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 식사한 후
전화할 때			전화를 걸 때,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끊을 때
발표할 때			발표하기 전, 발표한 후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사과할 때			사과할 때
축하할 때			(생일, 생신, 합격, 새해 등) 축하할 때

<표 4>는 한국어의 언어적인 인사표현을 분류한 표이다. 분류마다 장소, 동작이 발생한 순서 등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분류가 나타난다. 다양한 하위분류에 따라 언어적인 인사표현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도 다양 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 4>의 하위분류를 바탕으로 언어적인 인사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표정, 동작, 몸짓, 손짓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곧 비언어적인 표현은 문자언어나 음성언어가 아닌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이 부족할 때 화자의 의도를 보완하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언어적인 인사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자는 비언어적인 인사표현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곧, 비언어적인 인사표현과 언어적인 인사표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안녕!}이라는 표현 대신 에 하이파이브라는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사용하여 인사한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가 잘못된 일을 한 사원에게 화가 나서 {나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원은 상사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할 수 있다. 이와같이 화자는 비언어적인 인사표현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인사표현 분류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강민이(2007), 황정민(2012)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강민이(2007: 34-45)에서는 한일 드라마에 나타난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주로 ‘미소, 손 흔들기, 악수, 포옹’ 등으로 분류하고 남녀 성별에 따른 사용 빈도를 비교하였다. 황정민(2012: 483)에서는 인사 장면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시선, 얼굴표정, 손짓, 몸짓’으로 분류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공통적으로 표정과 몸짓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따라서 비언어적인 인사 표현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한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감정표현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로 이 유인(2014)을 들 수 있다. 이 유인(2014: 32)에서는 “비언어적 표현 유형의 신체언어 중 몸짓과 얼굴표정으로 나타낸 {기쁨, 슬픔, 분노}의 감정표현을 위주로 비언어적인 표현 목록을 정리하겠다.”라는 관점에 따라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에 대한 분석할 때 화자가 어떤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는 지를 동시에 화자의 감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자에 따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분류를 참고하여 <표 4>에 제시한 분류에 따른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은 화자의 감정을 포함한다. 이에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기쁨]과 [-기쁨]의 화용 자질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는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비언어적인 인사표현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누고 이를 화자의 감정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 베트남에서 인사표현 분류

인사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이지만, 그 안에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존경, 관심을 표현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서 인사는 단순한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유의 가치와 의사소통 규칙을 반영한다. 언어학자들은 인사 표현을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인사의 유연성, 다양성, 깊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학자들인 Nguyễn Quang (2000), Nguyễn Thị Hai (2005), Nguyễn Văn Khang (1999), Lê A (2013)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어 인사의 행위를 연구하고 분류했다.

Nguyễn Quang (2000)의 연구 *Giao tiếp – Từ lý thuyết đến thực tiễn*에서 저자는 의사소통 학의 관점에서 인사 행위를 접근하며, 언어와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말로 이루어진 정보 교환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Nguyễn Quang 의 분류에서 특색 있는 부분으로, 그는 의사소통이 단지 말로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현, 제스처, 태도 등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요소들은 베트남과 같은 풍부하고 섬세한 의사소통 문화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Nguyễn Quang 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의 의사소통 문화에서 인사 행위는 단순히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짓는 등의 비언어적 제스처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인사를 전달하기 위해 말과 결합되거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들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존경, 겸손, 섬세함을 반영하며, 특히 공식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Nguyễn Quang 과는 달리, Nguyễn Thị Hai(2005)는 *Giao tiếp và ngôn ngữ giao tiếp*에서 베트남어의 언어적 인사 표현 시스템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그녀는 인사 표현의 사용을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누었다: 시간에 따른 인사, 사회적 관계에 따른 인사, 친밀도에 따른 인사. 이러한 분류 방법은 명확하고 적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현대 의사소통에서 언어의 유연성과 발전을 충분히 반영한다.

시간에 따른 인사 그룹에서, Nguyễn Thị Hai 는 "Chào buổi sáng" (좋은 아침), "Chào buổi tối" (좋은 저녁)와 같은 표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사는 영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직장 환경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 보편화되었으며, 베트남의 의사소통 문화에서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에 따른 인사 그룹으로 넘어가면, Nguyễn Thị Hai 는 개인 간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인사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구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Cháu chào ông ạ"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립니다), "Em chào chị" (언니께 인사드립니다)와 같은 표현은 단지 존경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베트남 문화에서 예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에서 친밀한 인사 그룹은 의사소통에서 유연성과 개인화된 특성을 나타낸다. "Ê, khỏe không?" (야, 잘 지내?), "Chào cậu nhé" (잘 가)와 같은 간단하고 친근한 인사는 친구들 사이 또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된다.

Nguyễn Văn Khang(1999)의 *Ngữ dụng học tiếng Việt* 연구에서는 인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어에서 인사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는 인사는 베트남어에서 호칭 시스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베트남어의 호칭어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강하여 나이, 성별, 계급, 친밀도 등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다.

Lê A(2013)는 *Tạp chí Ngôn ngữ và Đời sống*에 발표한 글에서 베트남 의사소통 문화의 특징인 간접적인 인사 현상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Đi đâu đấy?" (어디 가세요?), "Mới về à?" (방금 오셨어요?), "Làm gì đấy?" (뭐 하세요?)와 같은 표현들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인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심을 나타내고 사회적 연결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간접적인 인사 표현의 사용은 베트남 사람들의 섬세함, 친밀함, 공동체 지향성을 반영한다. Lê A 는 이러한 표현이 문화적 가치를 지닌 언어적 신호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당황하거나 의사소통의 목적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적인 인사 표현의 사용은 언어의 유연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 방법들을 통해 각 저자는 베트남어 인사 표현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탐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guyễn Quang 는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형태에 주목했고, Nguyễn Thị Hai 는 직접적인 말에 집중했으며, Nguyễn Văn Khang 은 호칭과 언어 사용 이론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Lê A 는 간접적인 인사 현상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분류의 다양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베트남어 인사 행위에 대해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는 언어가 특정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 놓였을 때 다차원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1.4. 인사말의 의미적·문화적 특성 (음성적, 양성적)

인사말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서,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기능을 넘어서 한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드러낸다. Brown 과 Levinson(1987)의 예절 이론에 따르면, 인사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적·문화적 경향, 즉 양성적 정중 전략(positive politeness)과 음성적 정중 전략(negative politeness)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적 정중 전략(positive politeness)은 친밀감, 유대감 형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수용받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사말은 사회적 지위의 구분이 크지 않은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시:

- 베트남어

“Chào cậu nhé!” (Chào cậu nhé!)

“Lâu rồi không gặp!” (Lâu rồi không gặp!)

“Khoẻ không?” (Khoẻ không?)

- 한국어

“안녕!”

“잘 지냈어?”

“요즘 어때?”

음성적 정중 전략(negative politeness)은 사회적 거리, 사생활, 체면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사말은 격식을 갖춘 상황,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된다.

예시:

- 베트남어

“Cháu chào ông ạ.”

“Em kính chào thầy ạ.”

“Tôi xin gửi lời chào trân trọng đến quý vị.”

- **한국어**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시지요?”

음성적·양성적 인사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 나이
- 사회적 지위
- 친밀도
- 의사소통 상황(격식 여부)

특히 한국어에서는 경어체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인사 표현 선택에 있어 존댓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인사 상황에서도 존경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며, 이는 유교적 가치관과 사회적 질서의 영향을 반영한다.

Nguyễn Quang(2008)은 베트남어 화자들이 상황에 따라 음성적·양성적 인사말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어의 인사 표현을 더욱 다양하고 부드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상황에 적합한 표현 선택에 대한 높은 언어적 민감성을 요구한다.

인사말의 의미적·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특히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줄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절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2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말의 언어 구조와 의사소통 기능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 인사말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화자 간의 존중, 친밀감, 위계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각 언어가 지닌 경어 체계, 사회 구조, 그리고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인사말의 구조와 기능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인사말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어휘 사용, 인칭 대명사의 선택, 문장의 형태, 억양 등의 언어적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인사말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의사소통의 목적,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인사말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문화가 어떻게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고, 그 관계를 표현하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2.1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말의 언어적 · 형식적 특징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말은 형식과 사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각 언어 체계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어휘, 인칭 대명사, 문법 구조, 비언어적 수단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두 언어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a) 한국어 인사말의 언어적 · 형식적 특징

한국어의 인사말은 의례적인 성격을 지닌 언어적 현상으로,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 지위, 거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수단이다. 이는 예의범절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사말은 경어법의 체계에 따라 정해진 언어 구조 속에서 사용되며 높은 수준의 공식성과 문법화를 보여준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인사말은 주로 ‘안녕하다’, ‘평안하다’와 같은 ‘평안함’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되며, 여기에 높임법이 결합되어 완성된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 “안녕하다” + 존댓말 어미 → “안녕하세요”
- “안녕하다” + 더 격식 있는 높임 어미 → “안녕하십니까”

이처럼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킴으로써 청자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표현하게 되며, 이는 인사말이 문법적으로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인사말은 대부분 수사 의문문이나 감탄문 형태의 고정된 문장 구조를 가지며, 정보 전달보다는 호감 표현이나 예의를 나타내는 기능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 “안녕하세요?” → 문장 구조는 의문형이지만, 실제로는 응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중한 인사를 나타냄
- “안녕하십니까?” →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례적 표현

Sohn(1999)에 따르면, 한국어 인사말의 종결어미(종결어미)는 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택된다: (1) 친밀도, (2)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3)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 이로 인해 같은 인사 행위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 친구 사이: “안녕!”
- 동료 사이: “안녕하세요.”
- 상급자나 격식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인사말에는 상대방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한 호칭과 존댓말이 자주 함께 사용되며, 특히 제 3 자를 언급할 때 더욱 공손한 표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이처럼 한국어의 인사말은 단순한 언어 구조를 넘어서, 사회적 규범, 대인 관계, 예절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언어-사회적 조직체계로서 기능한다. 특히 인사말의 공식성과 문법화, 경어법에의 의존성은 한국 사회의 위계적 문화 구조를 반영하며, 나이, 지위, 관계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b) 베트남어 인사말의 언어적·형식적 특징

베트남어의 인사말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빠질 수 없는 언어 행위로, 대화를 시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존경의 표시이자 감정적 유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문화적 표현 방식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베트남어 인사말은 유연한 구조와 개방된 형태, 풍부한 감정 표현을 특징으로 하며, 화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나 특정 상황에 따라 내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베트남어 인사말은 주로 동사 “chào”(인사하다)와 상대방에 대한 호칭어나 인칭대명사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 “Chào chú Hai mới đi rẫy về ạ.” (할아버지, 밭에서 돌아오셨어요?)

- “Con chào thầy giáo ạ.” (선생님 안녕하세요.)
- “Chào mấy đứa, đi học về rồi đấy à?” (애들아, 학교 다녀왔니?)

이처럼 베트남어에서는 가족 내 지칭어(“chú Hai”), 직업 호칭(“thầy giáo”), 혹은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mấy đứa”)을 통해 인사말을 개별화하며 친근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인사말에는 **“ạ”, “dạ”, “nghe”, “hen”, “nhé”**와 같은 정중 표현(감탄사)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문법적 역할뿐 아니라 화자의 정중함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 “Dạ con chào bà, bà mới đi chùa về ạ?” (할머니, 절 다녀오셨어요?)
- “Chào chị nhé, hôm nào ghé chơi hen.” (언니,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 “Dạ, con chào ba má, tụi con mới về tới.”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막 왔어요.)

지역에 따라 이러한 감탄사의 사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ạ”가, 남부 지역에서는 “dạ”, “hen”과 같은 표현이 보다 자주 사용된다. 이는 베트남어 인사말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어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의 기능을 넘어서는 의미 확장적 표현을 자주 포함한다. 즉, 인사말이 질문, 칭찬, 안부 등과 결합되어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 “Chào cô, hôm nay cô mặc áo dài đẹp quá!” (선생님, 오늘 아오자이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 “Dạ chào bác, dạo này sức khỏe bác sao rồi ạ?” (아저씨,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 “Chào anh Tư, lâu rồi không gặp, khỏe không anh?” (뚜 형,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례적 인사를 넘어서 감정 교류와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베트남 문화가 정(情)을 중시하고, 유대감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베트남어 인사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 없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를 대접하거나 가족 안부를 묻는 등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는:

- “Anh ngồi chơi, em pha trà.” (편히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 “Nghe nói bác gái dạo này đau lưng, đỡ chưa bác?” (이모님 허리 아프셨다던데 좀 나아지셨어요?)

이러한 표현은 비록 “chào”라는 단어를 직접 포함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사회에서 인사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베트남 인사 표현이 매우 섬세하고 함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베트남어 인사말은 형태적으로 유연하며, 대인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경직된 경어 체계를 가진 한국어 인사말과 차별화되며, 베트남의 유연하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적 특징이다.

2.2.2. 사용 맥락에 따른 인사말의 분류

의사소통에서 인사말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한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요소를 깊이 있게 반영하는 표현이다. Brown 과 Levinson(1987)의 이론에 따르면, 인사말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정중 전략(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인사말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시간대, 사회적 관계, 만남/작별 상황, 그리고 간접적인 표현 방식 등이다.

a) 시간대에 따른 인사말

두 언어 모두에서 인사말은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등 시간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Park Mi-ok(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시간대에 따른 인사말이 일상적인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나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베트남어에서도 “Chào buổi sáng(좋은 아침입니다)”, “Chào buổi chiều(좋은 오후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존재하지만, 주로 의례적인 맥락이나 행정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시 (한국어):

A: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찍 오셨네요.

B: 네, 좋은 아침입니다. 회의 준비하러 왔어요.

예시 (베트남어):

A: Chào buổi sáng anh Dũng. Hôm nay anh đi làm sớm thế!

B: Ừ, chào em. Sáng nay có họp nên tranh thủ đi sớm.

b) 사회적 관계에 따른 인사 표현

Sohn(1999)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어체계는 매우 복잡하며, 인사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 화자는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매우 정중함), “안녕하세요”(보통의 예의), 또는 “안녕”(친근함)과 같은 표현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베트남어에는 한국어만큼 뚜렷한 경어체계는 없지만, 문법 구조와 호칭어 사용을 통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관계 및 예절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Nguyễn Thị Quỳnh Trang, 2017).

예시 (한국어):

학생: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준비 잘 했나요?

예시 (베트남어):

Sinh viên: Dạ, em chào thầy ạ.

Giảng viên: Ừ, chào em. Em đến sớm thế.

c) 상황에 따른 인사 (만남 - 작별)

한국어에서는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 표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특히 작별 인사의 경우, 누가 자리를 떠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 안녕히 가세요 - 자리를 떠나는 사람에게 사용.
- 안녕히 계세요 -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사용.

반면, 베트남어에는 다양한 작별 인사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화자와 청자의 위치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Chào anh nhé” (Chào anh nhé), “Em về trước ạ” (Em xin phép về

trước ạ), “Hẹn gặp lại” (Hẹn gặp lại) 등은 모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된다.

예시 (한국어):

A: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뵈요.

예시 (베트남어):

A: Em xin phép về trước ạ. Chào anh nhé.

B: Ừ, về cẩn thận em nhé.

d) 간접적인 인사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에서 간접적인 인사 표현이 존재하며, 이는 암시적 언어나 행동을 통해 인사하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Nguyễn Văn Khang, 2002). Kim Hye-sook (2015)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밥 먹었어요?” 또는 “어디 가세요?”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사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어에서도 “Đi đâu đấy?”(어디 가세요?), “Dạo này khỏe không?”(요즘 건강은 어때?) 등의 표현이 인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시 (한국어):

A: 밥 먹었어요?

B: 네, 좀 전에 먹었어요. 선생님도요?

예시 (베트남어):

A: Lâu rồi mới gặp chị. Vẫn khỏe chứ?

B: Ừ, cũng tạm. Em dạo này sao rồi?

상황에 따른 인사 표현의 분류는 학습자와 언어 연구자에게 두 언어의 인사 사용에서 나타나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어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영한 형식성과 규범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베트남어는 위계 구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휘와 문맥을 통해 예의와 융통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대조 분석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2.2.3.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 표현을 통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

언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언어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Edward Sapir 와 Benjamin Lee Whorf 의 관점에 따르면, 언어는 각 공동체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수단이자 “문화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Kramsch(1998)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문화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인사말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언어 행위이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표현으로, 언어와 문화가 서로 얹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인사 표현 체계는 유교 문화의 기반 위에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다. 위계 질서, 사회적 지위 및 존경의 정도와 같은 요소들이 인사 표현의 사용 방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 문화가 인사말의 형태와 화용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언어 내에 다양한 계층의 경어 표현이 발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베트남어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유연하고 친근한 의사소통 문화를 지닌다. 베트남어의 인사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 감정,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한국어처럼 공식화되거나 계층화된 구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베트남 문화가 유연함, 섬세함, 그리고 인간 중심의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Nguyễn Thị Hồng(2012)과 Sohn(1999)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사 표현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각 민족의 문화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말을 통해 화자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수용하고 유지하는 가치 기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언어와 문화의 관계 비교표

기준 항목	한국어	베트남어
주된 문화적 영향	유교: 위계질서 중시, 공경 - 양보 - 겸손의	유교와 마을 공동체 문화의 결합, 친밀도와

	가치 강조	감정을 중시
관용 표현화 정도	높음: 맥락과 지위에 따라 정해진 표현 사용	낮음: 맥락과 친밀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사 표현 사용
문화 정체성의 표현	의례성과 예의 중시, 사회적 위계 명확하게 구분	친근함, 감정적 유대감, 상호 관심 중시
공동체/개인의 성향 표현	공동체 지향 강함: 개인은 사회적 규범을 언어를 통해 따름	공동체성과 개인성의 조화,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이문화 간 소통	학습자는 경어체와 위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음	학습자는 대명사와 인사 표현의 감정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요약하자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사 표현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사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언어 체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사고방식,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인사말에 대한 분석은 해당 언어가 존재하고 발전해 온 문화적·사회적 맥락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제 3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3.1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말 구조 및 형성 방식 비교

인사말은 대부분의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의사소통의 시작점이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사말의 구조와 형성 방식은 각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뚜렷이 반영하며, 이는 해당 언어의 문법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본 항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말을 문법, 표현 형식, 문화적 요소의 영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대조하고자 한다.

3.1.1. 한국어 인사말의 구조 및 형성 방식

한국어의 인사말은 한국어 문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존댓말 체계(경어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다. Sohn(1999)에 따르면, 경어법은 단순히 언어 형식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며,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사말은 단순한 언어 공식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자 사회적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 표현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가장 널리 쓰이는 보통 경어체 표현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연장자나 낯선 사람, 직장 내 상사 등과의 대화에서 사용된다.
- **안녕하십니까:** 보다 격식 있는 높임말 표현으로, 공식적인 발표, 뉴스 보도, 군대, 또는 직장에서의 엄격한 위계 관계 속에서 사용된다.
- **안녕:** 반말 표현으로, 친한 친구나 동년배, 또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쓰이며,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적인 관계에서만 적절하다.

이러한 구조는 인사말이 단순히 말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 및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예시 1 (공손한 형태):

A: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요즘 잘 지내세요?

(Chào thầy Kim ạ. Dạo này thầy có khỏe không?)

B: 네, 잘 지냅니다. 학생도 잘 있었어요?

(Vâng, thầy vẫn khỏe. Em cũng vẫn ổn chứ?)

예시 2 (친한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인사말):

A: 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Này~ Lâu rồi không gặp! Dạo này ổn không?)

B: 어, 잘 지냈지! 너는? 얼굴 완전 오랜만이다~

(Ừ, vẫn ổn! Còn cậu thì sao? Lâu lắm mới thấy mặt đấy~)

또한, 한국어에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인사 표현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사말 대신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형 문장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A: 밥 먹었어요?

(Bạn ăn cơm chưa?)

B: 네, 먹었어요. 선생님은요?

(Vâng, em ăn rồi. Còn thầy ạ?)

Kim & Park(2014)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질문은 실제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1.2. 베트남어 인사말의 구조 및 형성 방식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의 인사말은 엄격한 경어법 체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주로 인칭대명사와 호칭어의 선택, 그리고 문장의 어조와 정서적 표현에 따라 구성된다. Nguyễn Văn Khang(2001)은 베트남어 인사말이 매우 유연한 성격을 가지며, 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 특히 지위, 나이, 친밀도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다고 설명한다.

베트남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사말 형태는 다음과 같다:

- ‘Chào + 호칭어/인칭대명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명확히 반영한다.

예시: *Chào bác ạ*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Chào cô giáo* (안녕하세요, 선생님), *Chào con* (안녕, 아이야) 등.

-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형 문장: 실제로 정보를 얻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친근함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인사 방식이다.
예시: *Về rồi à?* (돌아왔어?), *Đạo này khỏe không?* (요즘 잘 지내?), *Anh đi đâu đấy?* (어디 가세요?) 등.

예시 1 (공손한 표현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경우)

A: Chào bác ạ! Bác mới đi chợ về hả?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방금 시장에서 오셨어요?)
B: Ừ, bác mới về. Trưa nay con ăn cơm chưa?
(그래, 방금 왔단다. 오늘 점심은 먹었니?)

예시 2 (친근한 표현 – 친구 사이)

A: Ê, dạo này khỏe không? Lâu rồi không gặp!
(야, 요즘 잘 지내? 오랜만이다!)
B: Ừ, tớ vẫn ổn. Cậu thì sao? Hôm nọ nghe bảo mới đổi chỗ làm à?
(응, 나 잘 지냈어. 너는? 요즘 직장 옮겼다며?)

이처럼 베트남어의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 표현을 넘어, 화자와 청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Trần Trí Dõi(2005)는 베트남어 인사말이 감정적 요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상호작용적 언어 행위로, 한국어와 같은 위계 중심의 경어 체계보다는 관계 중심의 소통 방식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3.2. 특정 상황에서의 인사말 사용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인사말은 단순한 사회적 언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화자 간의 지위, 사회적 거리,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인사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통해 분석한다. 예를 들어, 첫 만남, 재회, 가족 내 인사, 공공장소 및 직장에서의 인사, 전화 통화 시 인사, 작별 인사 등이 포함된다.

3.2.1. 처음 만났을 때

기준 항목	베트남어	한국어
인사말 구조	“Cháu chào bác ạ”, “Em chào anh/chị ạ”, “Con chào cô ạ”...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언어적 형식	인칭 대명사 + 호칭어 + 예의 표현 사용(예: ạ)	경어와 정해진 공식 표현 사용
동반되는 비언어적 행동	고개 숙이기, 미소 짓기, 가볍게 손 흔들기	고개 숙이기 (정중함의 정도에 따라 다름)
문화적 요소 반영	유연하며 사회적 관계 (나이, 지위 등)를 중시	엄격하며 유교적 위계 구조와 경어 체계를 반영
실제 인사 예시	“Cháu chào bác ạ. Cháu là sinh viên năm nhất.”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민수입니다.”

실제 대화 예시:

- 베트남어:

A: *Em chào anh ạ. Em tên là Hương, nhân viên mới ạ.*

B: *Chào em. Anh là Dũng – trưởng nhóm marketing. Rất vui được gặp em.*

- 한국어:

A: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B: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호입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볼 때, 베트남어와 한국어 모두 첫 만남에서의 인사말은 일정한 의례성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 방식과 규범성의 정도에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인사 표현의 구성 요소 대비표

구성 요소	베트남어	한국어
인칭 대명사	✓ 있음 (em, cháu, con 등)	✗ 인사말에서 사용되지 않음
호칭어 (사회적 지위)	✓ 있음 (bác, cô, anh 등)	✗ 인사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공손 표현	✓ 있음 (“ạ”, “dạ”)	✓ 있음 (“-세요”, “뵙다”, “-습니다” 등)

구체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대화에서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칭 대명사(예: “cháu”, “em”, “con”)를 자주 사용하며, 여기에 공손 표현인 “ạ”를 결합하여 예의를 갖추면서도 친근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Nguyễn Thị Lộc(2002)은 베트남어의 인사말이 단순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복잡한 호칭 문화를 반영한 문화적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각 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며, 이는 화자가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인사 표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한국어의 인사말은 매우 규범적인 언어 의례로, “안녕하세요”나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은 고정된 표현을 나이, 친분의 정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Sohn(1999)은 한국어의 경어 체계가 엄격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모든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겸손함, 공손함 또는 낮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즉, 첫 인사는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와 위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한국어 인사에서 흔히 동반되는 고개 숙이기는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Lee & Ramsey(2000)의 연구에 따르면, 고개를 숙이는 각도와 시간은 상황의 격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예절 체계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베트남어 인사에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끄덕이는 동작이 동반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주로 격식 있는 상황이나 화자가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나타난다. 일상적인 많은 대화 상황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은 미소 짓기, 끄덕임, 손을 가볍게 흔드는 등의 부드러운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친근함과 예의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인사말은 모두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구축하는 기능을 공유하지만, 베트남어는 감성적 유연성과 인간관계 중심의 특성을 반영하는 반면, 한국어는 형식성과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베트남 문화와 위계 및 규범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간의 문화적 대비를 잘 보여준다.

3.2.2.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의 인사말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친밀도, 관심,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어휘 선택, 표현 방식, 태도 등은 각 언어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본 절에서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라는 상황에서의 인사말 사용 방식을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제 대화 사례를 통해 비교·대조하고자 한다.

베트남인의 의사소통 문화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은 대체로 친밀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띠며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인사말에는 건강, 일, 생활 등에 대한 안부 인사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형식이나 의례에 얽매이지 않는다. 베트남인은 인사할 때 형식적인 틀보다는 진심을 담아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며, 때로는 감탄사적인 표현도 사용한다.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예시:

A: “Trời đất, Ngọc đấy à? Bao lâu rồi không gặp cậu!”

B: “Ôi, Mai! Tớ tưởng cậu đi nước ngoài luôn rồi chứ. Mấy năm nay cậu thế nào?”

A: “Tớ mới về đấy. Cậu vẫn làm ở ngân hàng hả?”

예시 2:

- A: “Chú Dững đó hả? Cháu không nhận ra luôn, nhìn trẻ quá!”
- B: “Haha, lâu không gặp cháu quá mà. Đạo này cháu học hành sao rồi?”
- A: “Dạ, vẫn học tốt ạ. Chú khỏe không ạ?”
- 예시 3 (친한 친구 사이):
- A: “Thằng này! Mất tích luôn, gọi không nghe máy.”
- B: “Xin lỗi, tại bận đi công tác hoài. Mà nhớ ông thiệt đó!”
- A: “Tối rảnh không? Làm vài ly đi, ôn chuyện cũ!”

또한 베트남인들은 인사할 때 웃음, 어깨 두드리기, 가벼운 악수, 심지어는 (친밀한 관계의 경우) 포옹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휘 선택의 유연성은 화자가 관계나 상황에 따라 인사 표현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Nguyễn Quang(1999)에 따르면, 베트남어의 인사말은 경직된 의례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유연한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편안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한국 문화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인사를 할 때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한 사이일지라도 한국인은 말할 때 어느 정도의 격식을 유지한다.

- 예시 1 (연장자와 옛 직장 동료 사이):
- A: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 B: “네, 잘 지냈어요. 교수님도 건강하시죠?”
- A: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 예시 2 (옛 학교 친구 사이, 존댓말 사용):
- A: “오~ 민수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뭐 하세요?”

B: “회사 다니고 있어요. 소연 씨는요?”

A: “저도 회사 다녀요. 우리 언제 한 번 밥 먹어요.”

예시 3 (아주 친한 친구 사이, 반말 사용):

A: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어디 갔었어?”

B: “군대 갔다 왔지. 너는? 취직했어?”

A: “응, 이제 직장인 됐어. 우리 술 한잔 해야겠다!”

예시 4 (학생과 옛 선생님 사이):

A: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민지예요.”

B: “아, 민지!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A: “네, 선생님은요?”

이 예시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 한국인은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
- 인사말 첫 문장은 주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가 사용된다.
- 존중을 나타내는 공손한 어조와 세심한 문법 표현이 특징이다.
- “덕분에”, “그동안”과 같은 반응어를 사용하여 공손함을 유지한다.

비교 대조

특성	베트남어	베트남어 예시	한국어	한국어 예시
형식의 정도	자연스럽고 유연하며 고정된 문장 형태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Trời ơi, lâu quá không gặp!”	예절을 준수하며, 널리 쓰이는 문장과 경어를 사용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인사 태도	진심 어린 친근함 표현	“Ui, nhìn cậu vẫn trẻ như	존중하며 사회적 거리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xura!”	유지	
비언어적 반응	포옹, 어깨 두드리기, 악수 등 친근한 제스처	재회 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림	가벼운 고개 숙임, 절제된 악수	고개 숙이기, 예의 바른 악수

3.2.3.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사

현대 사회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간접적 소통 방식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화자의 억양, 표정, 몸짓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접 대화와 달리, 간접적 소통,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한 경우에는 인사말이 관계 설정, 호감 형성, 상호 위상 정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에서의 인사 표현 방식은 각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베트남어: 유연하고 개인화된 감성 중심의 표현

베트남어에서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인사 표현이 대화 상대와의 관계 정도 및 친밀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된다. 베트남인은 예의와 친근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호칭 체계를 활용하고 “ạ”, “em chào anh/chị”, “cho em hỏi” 등의 표현을 자주 쓴다. 특히 격식이 덜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인사말이 간결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고정된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시 1 – 업무용 전화 통화:

- A: “Alo, em chào anh ạ. Em là Hương – bên phòng nhân sự công ty Nam Minh.”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Nam Minh 회사 인사팀의 호영입니다.)

- B: “À, chào em. Anh là Tuấn – trưởng phòng kỹ thuật. Em cần trao đổi gì vậy?”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부장 뚜언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예시 2 – 친근한 관계의 전화:

- A: “Alo, chị Trang phải không ạ? Em là Nga – bạn của Hương nè.”

(여보세요, 짱 언니 맞으시죠? 저는 흐영의 친구 응아예요.)

- B: “À, Nga đó hả? Lâu quá rồi! Có chuyện gì vậy em?”

(아, 응아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예시 3 – 지인을 위한 문자 메시지:

- “Chào chị ạ, em là Mai – bạn của chị Linh. Chị cho em xin địa chỉ nhà mình với ạ.”

(안녕하세요, 저는 린 언니의 친구 마이입니다.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 4 – 친한 사이에서의 문자:

- “Anh ơi, rảnh không? Tối nay tụi mình tụ tập nha!”

(오빠~ 시간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 모일까?)

위 예시들에서 볼 수 있듯, 베트남어 인사 표현은 개인화되고 감정 중심의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Nguyễn Quang(1999)은 베트남인이 공식적인 언어 체계보다는 감정과 관계 중심의 인사말을 선호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위계가 엄격하지 않은 환경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 의례적 구조와 경어 유지

베트남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사에서도 엄격한 경어 및 사회적 위계 규범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비교적 친밀하거나 비공식적인 상황, 예를 들어 개인 간의 문자 메시지에서 한국인들은 정중함과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표준화된 언어 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시 1 - 업무용 전화 통화:

- A: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남민 회사 인사팀의 황지은입니다.”
- B: “아, 네. 안녕하세요. 기술팀의 김태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예시 2 - 모르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문자 보낼 때:

- “안녕하세요. 저는 린 씨 친구 마이입니다.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예시 3 - 친하지 않은 친구 간의 문자:

- “안녕! 요즘 잘 지내?”

전화나 문자 메시지라는 매체를 불문하고, 한국어 사용자들은 “안녕하세요”, “~입니다”, “~드려도 될까요?” 등의 경어 표현을 자주 활용하며, 이러한 언어적 방식은 사회적 위계와 예의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한다. Sohn (1999)과 Lee (2009)는 한국 문화가 위계와 체면(face)을 중시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례성과 격식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Brown & Levinson (1987)의 면면이론(face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언어 사용은 “소극적 예의 전략(negative politeness strategy)”의 전형적 사례로, 상대방의 자율성과 심리적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층 구조가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인사말을 포함한 일상 대화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사는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문화적 차이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영역 중 하나이다. 베트남어가 유연함, 친밀감, 감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구성한다면, 한국어는 모든 소통 채널에서 경어와 사회적 위계를 엄격히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언어 체계의 차이를 넘어서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 인간관계 구조, 사회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2.4. 작별 인사

작별 인사, 즉 이별 인사는 대화를 예의 바르고 완전하게 마무리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개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작별 인사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태도, 감정, 그리고 친밀도의 정도를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첫 인사에 비해, 작별 인사는 특히 친구, 가족, 동료 등 개인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감정적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나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 작별 인사를 사용하는 방식과 표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양국의 문화적 사고방식과 언어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베트남어에서 작별 인사는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로 의사소통의 맥락과 화자 간의 친밀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사용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Thôi, em xin phép về trước ạ”(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Em chào anh chị”(형님들 안녕히 계세요), “Đi cẩn

thận nhé”(조심히 가요), 또는 “Mai gặp lại”(내일 봐요) 등과 같은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예의와 동시에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예시 1 – 사회적 상황에서의 작별 인사:

- A: Thôi, em xin phép về trước ạ.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 B: Ừ, em về nhé. Mai gặp!
(응, 잘 가요. 내일 봐요!)

예시 2 – 친밀한 관계에서의 작별 인사:

- A: Thôi tao về nhà!
(야, 나 간다!)
- B: Ừ, đi cẩn thận nhé! Nhắn tao khi nào về đến.
(응,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해!)

이처럼 작별 인사의 부드러움은 “nhé”, “nhà”, “về cẩn thận nha” 등의 감정 표현을 포함한 단어 사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Nguyễn Quang (2002)은 구어적 소통에서 베트남인은 감정 요소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중요시하며, 작별 인사에서도 이러한 개인화와 친밀성이 베트남 언어문화의 특징으로 잘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작별 인사가 비교적 규범적인 언어 표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정한 격식이 유지된다. 한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고정된 경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 안녕히 계세요 (계시는 분에게)
- 안녕히 가세요 (떠나는 분에게)
-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시길 바람)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려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시 1 – 사회적 상황에서의 작별 인사:

- A: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Vây thì tôi xin phép đi trước.)

- B: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Vâng, về cẩn thận nhé!)

예시 2 – 친밀한 관계에서의 작별 인사:

- A: 나 먼저 간다~

(Tao đi trước nha~)

- B: 응~ 조심히 가~ 카톡 해!

(Ừ, đi cẩn thận nha~ Nhớ nhắn KakaoTalk đấy!)

비격식체(반말)를 사용할 때에도 “조심히 가”와 같은 일정한 예절 표현을 유지하며, 종종 말끝을 길게 늘이거나 친근한 어미를 사용하여 정서적 친밀감을 더한다. Sohn (1999)은 한국어의 경어체가 위계적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언어적 도구이며, 작별 인사에서도 이러한 언어적 규범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Brown & Levinson (1987)은 한국처럼 사회적 위계가 뚜렷한 문화권에서 작별 인사는 “긍정적 예의 전략(positive politeness strategy)”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작별 인사에 친절한 말이나 안부 표현을 덧붙여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작별 인사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단순히 대화를 예의 있게 마무리하는 기능을 넘어 각 민족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베트남어에서는 감정, 친밀함, 그리고 유연성을 중시하며 작별 인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인간관계와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의례적 구조, 경어체 사용, 그리고 사회적 위계질서의 유지를 중시하며 작별 인사를 표현하는데, 이는 예절 중심적이고 계층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3. 한국어와 베트남어 인사 표현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인사말은 사회적 성격이 강한 언어 행위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사회적 지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해당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한다. 제 2 언어로서 인사 표현을 학습하고 사용할 때, 학습자는 단순한 언어 형식의 숙달을 넘어서, 각 인사말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와 한국어 간의 언어 체계 및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사말을 사용할 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3.3.1.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에 의한 오류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모국어의 인사 표현을 목표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라고 불리며, 모국어의 언어 규칙이나 습관을 목표어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표현을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Chào anh”, “Chào em”, “Em chào cô ạ”와 같은 표현을 한국어로 직역하여 “형, 안녕하세요” 또는 “선생님, 안녕하세요요”와 같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베트남어처럼 인칭 대명사를 문두에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호칭의 사용 또한 엄격한 위계 규범을 따르므로 이러한 표현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반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베트남어에서 “Chào” 또는 “Xin chào”와 같은 너무 간단한 인사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절한 존대 표현이나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게 되어, 문장이 부정확하거나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Nguyễn Quang (2002)는 “예의 있는 언어 행위에서의 전이 오류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3.3.2. 적절한 높임말 수준 선택의 어려움

한국어는 높임말 체계가 발달된 언어로, 종결어미(-요, -습니다, -시-) 및 높임 어휘(예: 밥 → 진지)를 통해 화자의 존대 의지를 표현한다.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주로 인칭 대명사와 억양을 통해 공손함을 나타내며, 동사 형태의 변화에 따른 높임말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각 상황에 적절한 높임말의 수준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교사를 만났을 때 한국어 학습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중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이 베트남어로 인사할 때 “Thầy”, “Cô”, “Anh/Chị”, “Bác”, “Chú” 등 다양한 호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표현 선택의 오류는 원어민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

Brown & Levinson(1987)은 사회적 관계에 맞는 공손함 수준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체면(face)’에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3.3. 간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인사 표현 혼동

전화나 메시지 등 비대면 환경에서 인사를 해야 할 경우, 학습자들은 상황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어떤 인사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 쉽다. 한국어에서는 전화 통화 시 관계나 상황에 따라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상대에 따라 “Alo”, “Em chào thầy ạ”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다.

하지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학습자들이 대면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사 표현을 비대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보낼 때 “Xin chào!”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어민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는 “Chào anh”, “Em chào chị ạ” 등 상대의 지위와 관계를 반영한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Kang(2006)의 한국어 전화 인사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상황(context)과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는 적절한 인사 표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언어적 기능을 체화하지 못한 제 2 언어 학습자들에게 큰 장벽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3.3.4. 인사 표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오해

또 다른 문제는 학습자가 인사를 단순한 형식적 언어 행위로 인식하고, 그 안에 내포된 사회적 지위, 정서, 친밀감 또는 거리감의 표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인사 표현이 실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쓰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이별 인사에도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한 표현이 포함된다. 즉, 떠나는 사람에게는 “안녕히 가세요”, 머무는 사람에게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 베트남어 학습자는 “Em về trước a”나 “Anh đi làm nhé”와 같은 표현이 실제로는 인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인사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Blum-Kulka & Olshtain(1984)은 “관습화된 언어 행위(conventionalized speech acts)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전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은 인사 표현을 놓치기 쉽고, 이는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3.3.5. 현대적 소통 방식과 SNS 습관의 영향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사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인사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안녕”, “Hế nhô”, “Hi cả nhà”, “쫘이따 봐” 등은 기존의 공식적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부분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학습자들은 이들의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예: 상사나 어른에게)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적 오류뿐 아니라 문화적 실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전통적 인사뿐만 아니라 현대 소통 방식에서의 인사 표현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인식하고,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인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 암기의 차원을 넘어선다. 각 인사 표현에

담긴 사회적 의미, 문화적 맥락, 화용적 기능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며, 언어 시스템과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 실제 소통 경험 부족, 모국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학습자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는 화용론과 문화론을 접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3.4. 베트남어와 한국어 인사 표현 사용 효과 제고를 위한 해결 방안

앞서 3.3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사 표현 사용에는 언어적 차이, 문화적 배경, 경어 체계, 소통 습관, 사용 맥락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접근 방식, 학습자의 실제 소통 능력 개발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언어학적 이론과 실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4.1. 교육과정 내 화용론 및 의사소통 문화 교육 강화

인사 표현 사용의 부적절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화용적 지식과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적 요소와 화용적 지식을 교수·학습 과정에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ymes(1972)가 제안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개념에 따르면, 학습자는 단순히 언어 구조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수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양한 인사 표현 유형을 상황별로 소개 (만남, 작별, 전화 통화, 메시지, 재회 등).
- 나이, 사회적 지위, 친밀도 등 인사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 드라마, TV 프로그램, SNS 등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인사 표현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인사말의 유연한 사용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3.4.2. 두 언어 간의 직접적인 비교·대조

언어 대비 분석(contrastiv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면 학습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사 표현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전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교사는 두 언어의 인사 표현을 나란히 제시한 비교 표(예: 안녕하세요 – “Về nhé ạ”; 여보세요 – “Alo”; 안녕하세요 – “Chào anh/chị”)를 자주 활용하여, 학습자가 각 표현의 기능, 어감, 사용 맥락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Nguyễn Quang (2005)에 따르면, 대비적 접근 방식은 학습자가 평소에는 인식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도와주며, 이러한 차이를 간과할 경우 의사소통에서 화용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4.3.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사 표현 학습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실제 의사소통 및 문화 체험의 부족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맥락을 모의하는 역할극(role-play), 멀티미디어 기반의 의사소통 활동, 원어민과의 교류 기회를 통해 학습자의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용 가능한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첫 만남, 재회,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인사 등 구체적인 상황별 역할극 진행
- 인사 표현을 미리 영화나 SNS 등을 통해 조사한 후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분석하는 플립러닝 수업 운영
-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인사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문화 동아리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language exchange)에 참여

Taguchi (2011)의 연구에 따르면, 화용적 능력은 학습자가 실제 상호작용 상황에서 언어를 접하고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된다고 한다.

3.4.4. 현대적 인사 표현의 업데이트 및 분류를 통한 의사소통 추세 반영

젊은 세대와 SNS 환경에서 사용되는 현대적 인사 표현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높은 화용성을 가지며 비표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표현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고, 학습자에게 비공식 인사와 표준 인사를 구분하여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녕”, “헬로우”, “Hế lô”, “Hi bạn” 등의 표현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직장이나 윗사람과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학습자는 이러한 현대 인사 표현의 사용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문화적 오해를 방지하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효과적인 인사말 사용은 단순한 언어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적 이해, 상황 및 언어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다. 제안된 해결책은 단순히 의사소통 오류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언어 학습 방법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 4. 결론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인사 표현 사용 방식의 비교·대조 연구”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지닌 두 나라의 인사 표현—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언어 행위—의 형식, 기능, 사용 맥락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언어학 및 문화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 사례, 교육 자료, 기존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어 교육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의 인사말은 높은 예절성을 가지며, 사회적 위계 구조와 경어체 시스템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반면, 베트남어의 인사말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감정적 친밀감을 중시하는 소통 방식을 반영한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 사회적 지위, 관계 등에 따라 인사말을 선택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일상적인 관심을 담은 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려 한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요?”(“Ăn cơm chưa?” – hỏi thăm đời thường để tạo sự gần gũi)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만남, 이별,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관찰 및 비교가 용이한 대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인사 표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두 문화 간 언어적 특성 – 구조 및 의사소통 전략의 차이를 밝혀냈다. 예를 들어, 직장 환경에서는 한국인이 정형화된 인사 표현과 함께 인사 예절(고개 숙이기, 정중한 경어 사용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베트남인은 보다 유연한 인사 방식을 선택하거나 “밥 먹었어요?”(Ăn cơm chưa), “일찍 출근했네?”(Đi làm sớm thế?)와 같은 관심 표현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사와 동시에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연구의 수행 조건과 범위로 인해, 원어민 및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나 설문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험적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에 언어 사용자들의 다각적인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료의 범위 역시 제한적이며, 기존의 문헌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와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특히 전통 의례(결혼식, 장례식, 명절 등)나 디지털 환경(소셜 미디어, 온라인 메시지, 업무용 이메일 등)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서의 인사 표현은 다루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주로 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 세대, 사회 계층에 따른 인사 표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의사소통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과 상황의 범위를 확장하고, 설문 조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동 관찰, 다양한 연령대 및 직업군에 대한 인터뷰 등 실험적 연구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및 카카오톡, Zalo, Messenger 와 같은 주요 메시지 플랫폼 등 현대적 의사소통 환경에서의 언어 자료 분석도 함께 통합해야 한다. 또한, 인사 표현이 현대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대(청년층 - 노년층), 거주지(농촌 - 도시), 외국어 학습자 공동체 내의 문화적 전환 등 다양한 요인이 인사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어문화 대조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국제적 상호작용에서의 오해 방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민이. 2007. 한일 TV 드라마에서 나타난 인사표현 연구: 만남과 헤어짐의 장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12. 우리말 인사화행의 연구. 우리말글 제 31 집. 우리말글학회. 195-228 쪽.
- 김보인. 2006. 한·일 의례성 인사말의 대조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김예지. 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 언어적·비언어적 접근. 언어와 문화 제 7 권 제 2 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5-79 쪽.
- 김예지. 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사 화행 연구: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제 9 권 2 호. 담화인지언어학회. 59-78 쪽.
- 박수란. 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인사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혜숙. 2007.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사표현 양상과 그 효과적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 18 권 1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9-179 쪽.
- 배재현. 2011.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사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 1998. 한국어, 일본어, 영어 및 중국어의 인사말 비교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4. 국제비교한국학회. 13-36 쪽.
- Nguyễn Thị Bình (2012), *Giao tiếp liên văn hóa Việt – Hàn: Một số điểm tương đồng và khác biệt*,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Nguyễn Văn Khang (2002), *Ngôn ngữ học xã hội*,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Nguyễn Thiện Giáp(2008), 『Giáo trình ngôn ngữ học(언어학 교재)』 ,
Nxb ĐHQG Hà Nội

(Brown & Levinson, 1987) “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 are especially common in hierarchical cultures like Korea, where maintaining rapport and respect is essential.”

(Sohn, 1999, p. 409)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계층적인 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인사와 작별 인사에서 모두 드러난다."